

드라마 '정도전' 영화 '역린'... 역사, 문화상품이 되다

역사를 소비하다

제품 드 그루트 지음



드라마 '정도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역린', 온라인 게임 '문명'의 공통점은 '역사'다.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서적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드라마 또한 날로 픽션화되고, 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 쇼 인기도 만만치 않다. 물론 이에 따른 과거사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정도전'을 통해, 대중들은 불우한 선각자의 생애와 여말선초의 역사를 간접 경험했다. 영화 '역린'을 통해서도 조선 정조 때 궁궐에서 벌어졌던 암투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비단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역사

를 포괄하는 영역은 실로 다양하다. 'TV 쇼 진품명품' 같은 프로에서부터 음악의 리메이크, 컴퓨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심지어 도시 탐험, 폭로성 전기물, 박물관의 기념품 가게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DB) 기술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즉 아마추어 역사가들이 자료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참여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대중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역사를 '소비'한다. '비학문적 분야의 대중의 역사 활동'은 지적 권위에 저항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교수 제롬 드 그루트가 펴낸 '역사를 소비하다'는 허구와 된 역사가 대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 문화적 상품으로서의 '과거'가 현존하는 대중에게 주는 의미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대중(아마추어 역사가들이) 역사를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가 역사 재현이다. 특정한 역사 사건을 그것이 발생했던 상황을 가정한 펼쳐 보이는 것을 말한다. 영국에서 행하는 시민혁명 시대의 전투 재현이나 미국에서 실시하

는 독립 전쟁 주요 전투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대중이 역사를 접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리빙 히스토리다. 역사 재현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과거의 모습을 당시 의상이나 생활 도구를 활용해 재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간이 리빙 히스토리 박물관이다. 그밖에 시대상을 재현하는 이벤트, 전시, 이를 토대로 하는 교육 등도 해당한다.

현대에서 역사를 접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미디어를 통해서다. 언급했다시피 드라마, 영화, 만화, 다큐 등과의 교섭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분쟁의 여지를 제공한다. 개인이 마음껏 자신만의 방법으로 역사를 변화시키거나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영역은 학문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방식은 대중들이 과거를 이해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다. '대중 역사학'이 새롭게 대두되고 그것의 자장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저자는 "학문적인 역사가들은 조심스럽고 대중과의 교감을 잃었지만 대중적 역사가들은 베스트셀러를 남기며 혁신을 이루는 포퓰리스트"라고 설명한다.

이쯤 되면 역사라는 정의는 무한대로



드라마 '정도전'

확장될 여지를 준다. E.H 카가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정의한 말은 이렇게도 수정이 가능할 듯 싶다. '역사란 다양한 '장르'를 통한 대화'라고.

이처럼 저자는 책을 통해 다양한 질문과 의미를 던진다. 역사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문화적 상품으로서의 과거는 대중의 상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역사를 다루는 여러 '장르'를 통해 역사에 대한 접근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게임일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전투일 수도 혹은 기본 전환용 오락일 수도 있다. 현대 문화가 과거와 만나는 방법은 혼합 장르적이고 복합적이며 이런 풍부한 다양성은 역사가들에게 도전과 근심을 낳는 것이다." <한울 아카데미·5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익명소설

익명소설작가모임 지음

독자 의식 않은 자유로운 작품

출판계와 독자들의 제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쓴 소설이 나왔다. 익명소설 작가모임에서 펴낸 '익명소설'은 문학적 실험을 만류하는 문단과 출판 분위기에 맞서 쓰고 싶은 글을 자유롭게 써낸 작품 집이다.

여느 소설책에서는 볼 수 있는 작가의 사진, 출신학교, 등단 매체, 문학상 수상 이력 등이 나와 있지 않다. 익명소설 모임이라는 이름하에 M, V, H, W, S, R, A, Q, L, Z 등 영문 이니셜이 작가의 존재를 알릴 뿐이다. 모두 10명의 작가들이 익명을 택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익명소설답게 개개의 작품은 파격을 선사한다. 기존의 이미지 때문에 시도할 수 없었던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선보인다. 그로 인해 독자들은 익명 작가가 누구인지 추정해볼 수 없게끔 꾸민 수 있다.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작가들을 걸선택했기 때문에 참여한 작가들도 누가 어떤 작품을 썼는지 모른다. <은행나무·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우리시대 진정한 '구라'... 10명의 단독자를 만나다

단독자

-고독하고 불안한 영혼의 지팡이

원재훈 지음

인터뷰집 '단독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많은 인터뷰에 등장한 이들이다. 그럼에도 이 책을 집어든 건 우리 시대 단독자를 만나는 이가 바로 시인 원재훈이기 때문이다. 내용이 탄탄한 그가 던지는 질문들, 그가 단독자들을 만나며 풀어놓는 단상들은 분명 기존의 인터뷰들과는 확연히 다를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원재훈의 작가열전' 등을 펴낸 시인 원재훈이 인터뷰집 '단독자-고독하고 불안한 영혼의 지팡이'를 펴냈다.

그가 만난 이들은 "사회적 명성과는 별개로 우리 속에 갇힌 호랑이처럼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다. 더럽고 치사한 꼴을



이여령·방배추·강신주·유홍준·이윤택 등

변방에서 북소리를 울리며

중심을 긴장시키는 마인드가 자유로운 사람들

보지 않는 '단독자'이기 때문이다. 또 그가 호명한 인물들은 "고단한 이 시대에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북소리를 울리며 중심을 긴장시키는 분들이다. 마인드가 자유롭고, 틀을 벗어나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기도 하다.

원 시인은 오래 전 한 일간지에 '조선의 3대 구라'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번 인터뷰집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가 정의하는 '구라'는 이런 거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지성의 함량을 재지 않는 인간이 인생을 담아 하는 굉장한 거짓말, 그 거짓말에 폭 빠져 이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참말'

그는 '구라'를 듣기 위해 모두 10명의 단독자를 만났다. 신문 기고에서 백기완·황석영과 함께 3대 구라로 언급된 '전설의 주먹' 방배추는 이번 인터뷰에서 '노동은 신성하다'는 말을 부정한다. 그의 몸은 절반이 노동으로 이루어졌기에, 노동으로 단련된 몸에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원 시인은 말한다.

저자가 차세대 구라로 뽑은 철학자 강신주가 끼어 있다. "남 탓하면 늙은 거지요"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한 두 사람은 시와 시인을 사랑하는 철학자와 시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방배추가 자기 대신 새로운 구라로 뽑은 유홍준 교수의 입심은 역시 대단하다.

책에서는 '땀과 피에 이어 이제는 한방울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여령, 자신의 고통을 채찍질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유머'가 필요했던 가수 한대수, 지금 시대의 필수요소는 '위대한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문화 게릴라' 이윤택 등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그밖에 시인 신달자, 화가 최경환, 시인 황금찬, 소설가 김주영을 만났다. <울림·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행복한 책 읽기

타사 튜터 '타사의 정원'

(월북 권)

정원을 가꾸고 있는 가드너라면 누구에게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타사 튜터 할머니. 칼데콧 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고 70여 년간 100권이 넘는 그림책을 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화작가이자 화가인 그녀의 삶은 아름다운 한 편의 명화였다.

대개 정원을 하나 만들려면 10여년을 넘게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한다. 튜터는 50대 중반에 버몬트주 말보로에 들어가 18세기 농가를 짓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나이 92세에 유명을 달리했는데 자연과 동물과 아이와 하나 되는 동화 같은 삶을 살았다.

이 책은 꽃을 통해 친구가 된 토마 마틴과 리처드 브라운이 수년 동안 타사의 생활을 지켜보며 그냥 지나쳐버리기에 아까운 정원의 매혹적인 풍경과 타사의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한데 모아 글과 사진으로 엮은 것이다. 이후에 몇 권의 책이 더 나왔지만 처음 발견했을 당시의 신선한 충격이 현재진행형이다.

책을 보면 온통 예쁜 꽃 사진이 섞여 있어 꽃만 봐도 활활하다. 그런데 꽃 사이로 보이는 타사 튜터 할머니는 꽃보다 더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태가 얼마나 고운지 흡사 꽃의 정령 같다. 꽃을 가꾸는 모습도 마치 꽃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린다.



동화작가가 사는 비밀의 화원

꽃밭에서 쓰는 토기화분과 꽃바구니 혹은 골동품 도구조차 고품스럽기 그지없다. 항상 옷을 잘 차려입고 땅아 올린 머리에 두건을 쓴다. 또 스카프를 두르고 앞치마까지 걸치면 최상급의 모델이 된다. 튜립을 몇 송이 들고 꽃밭을 거니는 모습이 표지 사진으로 쓸 만큼 압권이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직접 천을 짜서 옷을 만들고, 요구르트와 치즈를 만드는가 하면 옛 물건을 좋아해 19세기처럼 불편을 감수하고 장작 스토브로 음식을 만들어 낸다. 또 비누와 양초도 직접 만들어 쓰는 전형적인 천자연주의자였다.

마당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식물 하나하나를 그대로 애지중지하면서 좋아하는 장미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아이가 싹을 예쁘게 틈었는데 날이 건조해서 시무룩해졌다'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판타지 동화의 한 대사처럼 애뜻함이 깃들여있다.

꽃이 주는 색의 향연을 펼치는 화려한 튜립, 붉은 속에 피어나는 성스러운 수선화, 탐스러운 꽃잎이 복슬대는 작약, 품위 있는 자태를 뽐내는 물능금나무 등 온갖 꽃과 나무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또 붓 터치로 재탄생한다. 일 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영국식 전원풍 가든인 '비밀의 화원'은 숨이 멎을 정도로 각양각색의 꽃이 핀다. 그녀가 테라스에 앉아 꽃을 마주하고 에프터는 티를 즐기는 멋스러운 모습은 상상 속에 맡긴다.

이렇듯 그녀는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깊이 뿌리내려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삶을 살았다. 우물쭈물 지내기에 인생이 너무 짧다고 했던 타사 할머니는 아마도 비밀의 화원에서 요술봉 대신 꽃봉을 휘두르는 꽃의 요정이 되었으리라.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신문에 동화 당선

새로 나온 책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정혼녀=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의 정혼녀였던 민갑완의 회고록. 민갑완은 구한말 주영공사를 지낸 민영돈의 장녀로, 열한 살 때 세자비로 간택됐으나 일제에 의해 강제 파혼당하고 평생을 수절한 비운의 여인이다. 영친왕, 마사코(이방자) 공주와 함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삶이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지식공작소·1만3500원>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이 옳은 일인지 판단할 수 없을 때, 슬픈적인 생활이 반복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 마하이 칙센트미하이, 필립 짐바르도, 필립 코틀러, 로버트 루트벤스테인, 커트 슈미트, 스티우트 프리드먼 등 우리 시대 지성인들이 '인



생 단 하나의 질문'을 뽑는 프로젝트. 과학, 경제,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현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해 90개를 엄선해 담았다. <웅진 지식하우스·1만5000원>

▲실험 학교 이야기=1995년에 출간됐다가 절판된 '실험 학교 이야기' 개정증보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일하고 놀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배움터 이야기가 '실험 학교'라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펼쳐진다. 출간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글쓴이 심충 인터뷰를 '부록-실험 학교 20년, 유구병의 못다 이야기'에 새롭게 담았다. 20년 전보다 한층 깊고 넓어진 유구

병 선생의 교육 철학을 만날 수 있다. <보리·1만5000원>

▲감시사회의 유혹='감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사회학자 데이비드 라이언의 대표작. '감시 사회'라는 개념은 감시 활동이 정부 관리 기구의 틀을 넘어 모든 사회적 회로로 확산됐음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한 분야에서 벌어진 일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드물었지만 오늘날 감시와 정보의 흐름은 서로 다른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한 분야에서 벌어진 일이 다른 분야에도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후마니타스·1만7000원>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철학=10대의

눈높이에 맞춰 문답 형식으로 엮은 철학 이야기. 고인이 된 대학학자 18명이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눈앞에 나타나 10대가 묻고 철학자가 답하는 기묘한 이야기 수업을 한다. 사랑, 성적, 직업, 자살, 신의 존재 등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할 법한 생활밀착형 질문들이 옛 철학자들의 입을 통해 통쾌한 해결책으로 탈바꿈된다. <글담출판·1만2800원>

▲신비한 인체로 떠나는 여행=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인체 잡학 수다방. 몸이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친숙하지만 또 무척이나 신비롭게 알 수 없는 세계다. 우리 몸에 대한 사소하지만 특별한 상식을 재미있는 삽화와 더불어 쉽게 풀어써서 누구나 흥미를 가지고 유쾌하게 읽을 수 있다. 몸에 관한 상식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유했기 쉬운 화제이므로, 알아두면 누구와도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지식여행·1만3900원>

어린이 책

▲수상한 옷장 속 시골벽적 친구들=꿈을 향해 모험하는 윈피스의 이야기. '옷장에서 잠만 자는 잠옷' 윈피스 하늘이는 한 옷 수거함 문턱에서 살아남아 지운이네 집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지운이의 관심을 끌지 못해 다시 잠옷이 될 위기에 놓이는데... 정해진 길만 따라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살림어린이·9500원>



▲나는 태양=어촌 유학을 통해 학교 폭력의 고통을 극복한 소년의 이야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입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파고들었다. 작가는 실제 한 소년 학교 폭력을 경험한 뒤 일본 시코쿠 지역의 작은 마을로 '어촌 유학'을 가서 상처를 치유한 과정을 담았다. <길벗어린이·1만3000원>

▲스마트폰 괴물이 나타났어요!=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창작 그림책. 재미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림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휴대기기 사용에 대한 심각한 의존도의 위험성을 깨닫고

자제심을 길러 현명한 사용을 하도록 도와준다. <하늘콩·1만1000원>

▲쓰레기는 어떻게 재활용될까?=일상생활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는지 전 과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뤘다. 책 뒷부분에는 게임과 활동을 통해 재활용 과정에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상식을 담았다. <다산기획·9000원>

